

만리장성 못 넘었지만...한국 남녀 탁구 '값진 은메달'

남녀 단체전 모두 중국에 제
김영건·김정길·서수연 등
광주 탁구의 저력 보여줘

한국 장애인탁구 남자 대표팀에 이어 여자 선수들도 만리장성의 높은 벽에 막혔다. 남자부 김영건(37), 김정길(35), 여자부 서수연(35·이상 광주시청)이 분전했으나 아쉽게도 은메달에 그쳤다. 김영건과 서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 2개로 만족해야 했다. 한국은 3일 열리는 남자 TT1-2체급에서 금메달을 기대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차수용(41·대구광역시), 박진철(39·광주시청), 김현욱(26·울산시장애인체육회)이 3일 오후 5시 프랑스와의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김영건, 김정길, 백영복(44·장수군장애인체육회)은 2일 도쿄 메트로폴리탄 체육관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남자탁구 단체전(스포츠등급 TT4-5) 결승에서 중국의 차오닝닝, 귀성위안, 장연에 매치스코어 0-2로 패했다.

이로써 2016년 리우 대회 금메달을 획득했던 한국은 도쿄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



2일 오후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체육관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여자 탁구 단체전(스포츠등급 TT1-3)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이미규, 서수연, 윤지유(왼쪽)와 남자탁구 단체전(스포츠등급 TT4-5)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백영복, 김정길, 김영건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탁구 단체전에서는 첫 은메달이다.

도쿄 패럴림픽 탁구 단체전은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복식, 단식, 단식순으로 진행된다.

1복식에서는 활약 호흡을 자랑하는 김정길-김영건 조가 중국의 차오닝닝-귀성위안 조에 0-3(5-11 11-13 11-13)으로 패하며 합계 경기 풀어갔다. 승부는 마지막 5세트에서 갈렸다. 차오닝닝이 4-0으로 빠르게 점수를 냈고, 김정길이 추격을 시작했으나 4-11로 패했다. 세트 스코어는 2-3(5-11 11-8 8-11 11-9 4-11).

여자부 서수연과 이미규(33·울산시장애인체육회), 윤지유(21·성남시청)도 같은 날 도쿄 메트로폴리탄 체육관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여자탁구 단체(스포츠등급 TT1-3) 결승에서 중국의 리첸-류징-쉐위안에 0-2로 패해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다.

기존 여자탁구 단체전 최고 성적은 2012 런던 대회에서 최현자, 정상숙, 조정희가 이종목에서 중국에 0-3으로 패하며 따낸 은메달이다.

5년 전 리우 대회 때는 이미규-서수연-윤지유와



함께 강외정-김 옥-정영아가 TT4-5체급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은 이날 1복식 초반 이미규-윤지유 조가 연달아 두 세트를 챙기며 기선을 제압하는 듯했다.

한국이 첫 두 세트를 11-6, 11-9로 잡으며 앞서나갔다. 하지만 중국 쉐위안-리첸 조가 연달아 세 세트를 잡아 승부를 뒤집으면서 한국은 2-3(11-6 11-9 7-11 9-11 9-11)으로 역전패했다.

승부차인 복식을 내준 한국은 2단식에서 윤지유를 앞세워 분위기 반전을 노렸으나 한때 11-10, 역

전에서 성공한 후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으나 듀스 점전에서 13-15로 패했다.

마음을 다잡은 윤지유는 2세트에서 11-2, 3세트에서 11-6으로 승리했으나, 4세트에서 결국 7-11로 패했다.

여자 대표팀은 리우 대회 동메달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며 2회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런던 대회 단체전 은메달 이후 9년 만의 여자탁구 단체전 최고 성적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아프간 태권도 선수 꿈의 무대서 '희망 발차기'

경기 졌지만 빛나는 도전 보여줘

2020 도쿄 패럴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대한민국 국기(國旗) 태권도를 빛낸 첫 주인공은 아프가니스탄의 자키아 쿠다디다(23)다.

국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장애인 여자 태권도 선수 쿠다디다는 2일 일본 지바 마쿠하리 메세 B홀에서 열린 도쿄 패럴림픽 태권도 첫 경기에 출전해 힘찬 발차기를 선보였다.

여자 49kg급(스포츠등급 K44) 16강전에서 나선

그는 지요다론 이자코바(우즈베키스탄)와 맞붙어 12-17로 패했다.

쿠다디다와 뒤이어 등장한 이자코바는 한 손으로 능숙하게 머리보호대를 착용했다. 그리고 서로의 몸통을 발로 차며 보호구 센서를 점검했다. 이어 주심이 "준비", "시작"을 크게 외치며 경기가 시작됐다. 상대적으로 키가 큰 쿠다디다는 긴 다리를 이용한 몸통 공격으로 선제점을 얻었고, 6-5로 1라운드 승리를 쟁겼다.

그러나 쿠다디다는 2회전에서 역전을 허용했

다. 내리 3번의 몸통 발차기를 성공한 이자코바가 12-8로 앞서 나갔다.

마지막 3회전에서 쿠다디다가 뒷심을 보이며 추격전에 나섰다. 결국 승부를 뒤집지 못한 채 12-17로 패했다.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그의 도전은 빛났다. 왼팔에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쿠다디다는 이번 패럴림픽에 참가하지 못할 뻔했다.

최근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공황이 마비됐고, 쿠다디다와 장애인 육상 선수 호사인 라소울리(26)는 수도 카불에서 출국하지 못해 발이 묶였으나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대회에 출전했다. /연합뉴스

전남 공도 2년 연속 전국대회 단체전 우승



전남체육회 소속 공도 선수단이 종합 우승기와 상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성, 김승현, 고민구, 안용환, 하선범, 김경하, 이기효.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도체육회 공도 선수단(이하 전남 선수단)이 전국 대회에서 2년 연속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전남 선수단이 지난 1일 전북 순창군 육일장에서 열린 '제60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공도대회' 단체전 일반부에서 우승했다고 2일 밝혔다. 선수단은 김경하, 김승현, 김도성, 하선범, 안용환, 이기효, 고민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전남 선수단은 합계 62점으로 광주와 동점을 기록한 뒤 데스매치 방식(비교사)으로 재대결을 진

행, 광주를 꺾고 우승기를 거머쥐었다.

전남 선수단은 지난해에 이어 같은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해 전국 최강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은 "2연패라는 큰 성과를 거두 대단히 기쁘고, 전남 공도인의 기대에 부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올 시즌에도 선수들이 굳은 땀방울을 흘려온 값진 보상"이라며 "다가오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강진군청·전남체중 우승...메달 휩쓴 전남 사이클

양양국제사이클대회 및 소년체전
나주시청 3위·전남체고 준우승

전남 사이클 선수들이 양양국제사이클대회 및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메달을 휩쓸었다.

강진군청은 지난날 27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815경축 2021양양국제사이클대회 및 전국사이클대회 겸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남일부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같은 대회에서 나주시청은 여일부 종합 3위에 올랐다. 고등부에서는 전남체고가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중등부에서는 전남체중과 빛가람중이 각각 우승과 준우승에 올랐다.

여중부에서는 전남팀끼리 열린 우승경쟁을 펼쳤다. 단체스프린트와 단체추발 2km에서 전남체중이 각각 우승을, 빛가람중이 아쉬운 준우승을 각각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송유진(전남체중)이 200m 2위, 최연경(전남체중)이 독주500m와 개인추발 1km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며 팀을 종합 우승으로 이끌었다.

남고부에서는 금성고 김정민이 스크래치 7.5km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조운상(금성고)도 제외경기에서 아쉬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고부는 전남체고 김재연이 3관왕을 달성하며



남자일반부 우승을 차지한 강진군청 사이클팀. <전남도체육회 제공>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다.

김재연은 1Lap에서 25.325초, 독주경기 500m에서 36.101초로 개인전 2관왕을 달성했다.

단체스프린트에서 전남체고는 1분11초109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전북체고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일반부에서도 전남 사이클은 돋보였다. 강진군청은 남일부 단체추발 4km에서 4분7초823의 기록으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차지했다. 나주시청은 여일부 단체스프린트에서 1분7초001로 부산스프린트를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상표(강진군청)는 템포페이스 10km와 제외경기에서 각각 금메달을 추가하며 역시 대회 3관왕에 올랐다. 신동인(강진군청)과 조선영(나주시청)은 각각 울니업과 스프린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관왕을 달성했다.

전남자전거연맹 최형구 전무이사는 "이번 대회, 각 부별로 고른 우수성적을 거양해서 굉장히 뿌듯하다"며 "약 한 달여 남은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기세를 이어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윤석민, 프로골프 첫날 15오버파 부진

은퇴한 프로야구 투수 윤석민(35)이 첫 프로골프 무대에서 이글을 잡았지만 15오버파로 부진했다.

윤석민은 2일 전남 나주의 해피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비즈플레이-전자신문오픈(총상금 6억원) 1라운드에서 15오버파 87타를 쳤다. 이날 1개와 버디 1개를 잡았지만, 보기 4개와 더블보기 2개, 트리플보기 2개, 쿼드러플보기 1개를 쏟아내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그러나 전장 383야드 11번홀(파4)에서 255.5야드 티 샷을 친 뒤, 홀 125야드에서 두 번째 샷을

그대로 홀에 넣어 짜릿한 이글을 잡았다.

윤석민은 이규민(21)과 나란히 최하위인 공동 147위에 올라 있다. 아직 1라운드 경기가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김주형(19)이 8언더파 64타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다.

윤석민은 이 대회에 추천 선수로 출전, 프로골프 정규투어 출전 기회를 받았다.

윤석민은 "초청을 받았지만 대회를 임하는 각오가 남달랐다"며 "샷이 잘 안 되고 결과가 안 좋다 보니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았다. 그래도 끝까지 잘 임하려고 했다. 아쉽긴 했지만 즐거운 라운딩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상처와 렌즈의 전설
- 2관 인질
- 3관 싱크홀
- 4관 상처와 렌즈의 전설
- 5관 상처와 렌즈의 전설, 귀문
- 6관 상처와 렌즈의 전설
- 9관 모가디슈
- 7관 씨네카를 싱크홀, 코다
- 8관 씨네카를 인질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회공연 포커스
서사무엘 UNITY
일시 : 2021. 09. 14.(화)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기회공연 포시즌
박수를 보내다 : 독주회 III 양인모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시 : 2021. 09. 06.(월)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